

# 강성열 교수의 성경을 여는 열쇠, 창세기

## 8강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 1.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15장)

#### (1) 자손의 약속을 구체화하심 (1-7절)

아브라함은 비록 가나안 땅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또 제사장 멜기세덱에게서 축복을 받기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마음속으로 크게 불안해하였다. 이러한 불안감은 그가 약속의 땅에서 여전히 땅도, 자식도 없이 살고 있다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것은 마침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까지 발전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약속을 압도하는 어두운 현실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하셨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환상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만나셨다. 그리고서 그에게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 “아브람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1절; 새번역).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였다: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2-3절; 새번역).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는 사실에 크게 낙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자손을 갖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왔고 또 그 약속을 의지하여 이제까지 살아왔는데도, 여전히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있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투로 자기 집에서 길리온 다메섹(Damascus)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시켜야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러한 계획은 당시의 사회 관습에 비추어볼 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주전 15세기경의 자료인 누지(Nuzi; 지금의 이라크 지역) 문서에 의하면 자녀를 두지 못한 부부는 자기들을 돌보아 주고 또 재산을 상속하는 한편으로 자기들을 매장해 줄 사람-그가 비록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을 양자로 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회 관습을 쫓고자 한 아브라함의 조급한 생각을 물리치셨다.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결코 그의 후사(後嗣; heir)가 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의 몸에서 직접 나게 될 아들이 그의 상속자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셨다(4절).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 그에게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들을 보여 주신 후에, 그의 몸에서 날 자손이 그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5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손의 약속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 비록 지금의

자신이 자식 한 명 없는 처지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라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한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그의 의(義)로 여기셨다(6절).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또 그가 그 믿음으로부터 얻은 의를 기독교의 이신칭의(以信稱義; justification by faith) 교리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였다(롬 4:1-25; 갈 3:6-9).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라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설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가 많은 자손을 가질 것이라는 내용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로라”(7절). 하나님의 이 약속은 사실 네 번째로 주어진 것이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란을 떠날 때 주어진 것이었고(12:1-3), 두 번째는 그가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주어진 것이었다(12:7).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다음에 주어진 것이었다(13:14-17).

## (2) 언약 세움의 절차 (8-21절)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은 아브라함은 자기와 자기 후손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되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물었다(8절). 아브라함의 이 물음에 하나님은 당시 주변 나라들 사이에 유행하던 언약 세움의 절차를 통해 자신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셨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3년생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생 암염소 한 마리와 3년생 숫양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 등을 준비하라고 명하셨다. 아브라함은 이 제물들을 준비하고서 비둘기를 제외한 나머지 희생 제물들의 몸통을 둘로 쪼개어 서로 마주 보게 차려 놓았다(9-10절). 그러자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린 후에 연기 나는 풀무(화덕)와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 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17절).

이러한 언약 세움의 절차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를 위해서는 ‘언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낱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언약’(또는 계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낱말은 ‘브리트’로서 본래 ‘...사이’(between)를 뜻한다. 그리고 이 낱말은 ‘자르다, 베다’(cut)를 뜻하는 ‘카라트’라는 동사와 결합하여 ‘언약을 맺다’ 또는 ‘계약을 체결하다’는 뜻의 숙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사이에(를) 베다’는 뜻의 어구가 ‘언약을 맺다’는 뜻의 관용어로 바뀐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하여 ‘...사이에(를) 베다’는 뜻이 ‘언약을 맺다’는 뜻으로 바뀐 것일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때 그것을 신 앞에서 맹세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렇게 해야만 계약 당사자들이 성실하게 계약의 내용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만일에 누군가가 그 계약의 규정들을 무시하거나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 그들은 소나 양, 또는 당나귀 등의 몸을 둘로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에, 그 쪼개 사이를 지나가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들이 이처럼 둘로 쪼개어진 짐승의 한 가운데를 지나가는 행위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곧 계약을 위반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쪼개어진 짐승의 몸과 똑같이 쪼개어질 것이라는 맹세를 뜻했다. 계약 체결의 증인으로 나오는 신(神)에 의해 그러한 저주를 받으리라는 일종의 저주 의식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계약 체결의 양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적용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암송아지와 암염소 및 숫양 등의 몸을 둘로 쪼개라고 명하신 것이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연기 나는 풀무와 타오르는 횃불의 형상으로 그 쪼개 사이를 지나가셨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나타내는 행동이었다. 즉 그 언약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 자신이 것처럼 두 쪽이 나도 좋다는, 하나님 자신의 굳은 약속이었던 것이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 쪼개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다. 그는 그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홀로 그 쪼개 사이를 지나가시는 모습을 본 것뿐이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언약에 대하여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이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아무런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방적인 것이요, 하나님 한 편만이 의무를 지고 있는 편무적(片務的; unilateral)인 것인 셈이었다. 달리 말해서 그것은 무조건적인 언약(unconditional covenant)이었던 것이다. 구약성경은 이러한 언약 체결 양식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에 적용하고 있다.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는 달리 조건적인 것이었는데, 이것을 예레미야 34:18-20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 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나 내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갈라진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자들은 모조리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새번역).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 주셨다. 그것은 곧 그의 후손들(이스라엘)이 나중에 다른 나라(애굽)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대째가 되면, 즉 그 400년의 종살이가 끝날 때쯤 되면 이스라엘을 종살이시킨 나라를 벌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많은 재물을 가지고서 그 나라를 빠져 나올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13-16절).

그런데 언뜻 보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과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는 성격의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 안에서 좌절과 실패를 겪어보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과는 너무도 거리가 있는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 속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의 운명까지도 관장하시는 역사의 주(主)이심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가 주관하시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상과 같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가나안 족속의 땅들을 그의 후손에게 줄 것임을 확약하심으로써 자신의 언약 세움을 마무리하셨다(18-21절).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다섯 번째로 주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어진 땅의 약속은 이전 것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은 애굽 강에서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18절). 따라서 그 지역은 보통 6-7족

속이 거주하는 가나안 지역보다 더 많은 10족속이 거주하는 곳으로 소개되고 있다(19-21절). 아마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중에 애굽과 바벨론 지역에 이르기까지 널리 흩어져 살던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사 27:12).

## 2.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음(16장)

### (1) 쫓겨나는 하갈 (1-6절)

하나님의 약속이 다섯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데도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큰 간격이 있었다. 16장은 그 중에서도 자손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현실을 대비시키고 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이 넘도록, 즉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도록까지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것이다(1, 3절; 11:30). 그런데 당시의 관습(함무라비 법전이나 누지 문서)에 의하면 본부인을 통해서 상속자를 낳지 못할 경우에는 첩을 통해서라도 상속자를 얻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누구보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을 첩으로 주기로 작정하였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뿌리치지 못했다(2절). 아마 이들은 하나님의 자손 약속이 사회 관습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정당하지 못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비록 그들이 처한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큰 간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굳게 믿고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을 참지 못한 사라는 상속자를 얻지 못해 한없이 초조해하는 아브라함이나,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조건이 없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의 행위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아무런 탈없이 하갈과 동침하였고, 그 결과 하갈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임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인 사를을 깔보았다. 그녀는 자기가 낳을 자식이 자기 자식이 아니요 당연히 사라의 자식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회 관습을 무시하고서 마치 태중의 자식이 자기 자식인 양 빠진 것이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한 사라는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하갈로 인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하소연하였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갈에 대한 처분권을 본부인인 사라에게 일임하였고, 사라는 마침내 하갈을 학대함으로써 하갈로 하여금 자기 집에서 도망하게 만들었다(4-6절). 이러한 결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서 취한 행동이 결국에 가서는 세 사람-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사이에 있던 본래의 친근한 관계마저도 끊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자들의 필연적인 결말인 것이다. 나중에 다시금 사라와 하갈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이나 배다른 형제인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생겨나는 갈등(21:9-11)도 이 점을 웅변적으로 보여 준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는다. 하갈을 대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도가 과연 정당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사라와 하갈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는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사라는 처음에는 하갈을 남편에게 주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를 멸시하는 하갈을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창 16:2, 5). 사라의 이 말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사라는 하갈을 한 번도 그녀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갈은 사라에게 있어 그저 ‘나의 여종’일 뿐이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그대의 여종’이라고 부른 것도 마찬가지로 차원에 속한다(6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첩이 된 하갈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채로, 단순히 두 사람의 상속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씨받이 구실에 그치고 있는 셈이었다. 이 점은 사라와 하갈 사이의 대화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뒷받침된다.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도 역시 대화 없었다. 물론 이것은 당시에 여종(노예)이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한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음을 생각한다면, 하갈에 대한 사라나 아브라함의 태도에는 부당한 점이 없잖아 있었다. 하갈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참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비록 그녀가 자기의 여주인을 우습게 알고 깔보기는 했지만 말이다.

## (2) 하갈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7-16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광야로 피신한 비천한 이방 여인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하갈을 그녀의 이름으로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사막에 있는 우물곁에서 하갈을 만나시고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8절 상반절). 그런데 뜻밖에도 하갈은 천사의 이 물음에 대답하면서 자기를 학대하여 쫓아낸 여주인 사라를 그의 이름으로 불러주고 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8절 하반절). 하갈을 대하는 사래의 태도와 사래를 대하는 하갈의 태도 사이에는 이처럼 주종(主從) 관계 이상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해진다.

이 점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하갈을 만나시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줌과 아울러 그녀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막에 혼자 남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하갈의 운명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음을 보여 준다. 하갈의 가련한 처지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갈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녀를 위로해 주셨으며, 또한 그녀에게 자손의 약속을 주시기까지 했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9-10절; 새 번역).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갈을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하갈이 만약 사막에 그대로 남게 된다면 하갈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녀의 배 속에 있는 어린 생명마저도 굶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갈과 그녀의 배 속에 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 것이다. 비록 하갈이 사래의 몸종에 지나지 않고 또 아브라함의 첩에 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는 생명 역시 보호를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갈에게 배 속의 아이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된 이상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라도 사래에게로 돌아가서-비록 수치스럽기는 하지만-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야만 했다.

하갈에게 그녀의 여주인 사래에게로 돌아가라고 명하신 하나님은 또한 하갈이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하갈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음을 뜻했다(11절). 그리고 천사가 전한 말에 의하면 하갈이 낳을 아들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이 될 것이며,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는 삶을 살 것이요, 모든 친척을 등지고 살 것이다(12절). 여기서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을 것이라는 말씀은 그가 가나안 주변의 사막 지대에서 아무런 숙박도 받지 않고서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의 삶을 살 것임을 뜻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만나 나눈 이상의 대화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여주인 사라를 낳은 하갈의 행위를 전혀 나무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도리어 하나님은 비참한 처지에 놓인 하갈을 위로하시고 그녀의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이러한 사실에 감동한 하갈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엘 로이,’ 곧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지어 불렀다. 이것은 그녀가 자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서도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사실에 감격한 까닭이었다(13절).

하갈은 이에 더하여 천사가 자기를 만난 곳, 즉 술(Shur)로 가는 길 옆에 있는 던 샘의 이름을 ‘브엘 라해 로이’라고 불렀다. 이 말의 뜻은 ‘나를 감찰하시는 분(‘로이’), 살아 계시는 분에게 속한(‘라해’, 더 정확하게는 ‘라하이’) 샘(‘브엘’)’이었다. 그러니까 하갈은 자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분이라는 신앙고백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었다(14절). 하갈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은 후에 다시금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다. 그리고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이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다(15-16절).

우리는 이상의 이야기에서 오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 하갈처럼 버림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남의 아이를 낳아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이름이 공공연하게 불리어질 수 없는 서글픈 현실에 직면한 사람들, 누구로부터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억울한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 -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해야 할 우리의 이웃들이나 것이다. 무릇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회의 음지에서 고생하는 우리 시대의 하갈들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찾아 나서는 따뜻한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 3.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행함 (17장)

#### (1) 또다시 언약을 세움 (1-8절)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여섯 번째 약속을 주셨다. 이 여섯 번째 약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과 흠 없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셨다(1-2절). 이 언약 세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엘 샷다이’였다. 이 이름은 본래 약카드어로 ‘산(山)의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주전 3세기 중반에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 오면서 ‘전능한 하나님’(헬라어로 ‘판토크라토르’; God Almighty)으로 번역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엘 샷다이’라는 이름을 자신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자신이야말로 우주적인 신임을 알리신 셈이었다(28:3; 35:11; 출 6:3 등을 참조).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약속은 이전의 것보다 훨씬 구체화되어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나타난다. 맨 먼저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크게 번성하여 열국(列國;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요, 그에게서 나라들과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다(4-6절). 이를 위해 하나님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인 ‘아브-람’(‘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람’은 ‘높은’이라는 뜻을 가짐)을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인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러한 개명(改名)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지배하에 놓인 자요, 하나님께 붙들린 자라는 사실을 의미했다.

두 번째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만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뒤에 오는 그의 자손들과도 맺으시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이 언약은 ‘브리트 올람,’ 곧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그의 자손의 하나님도 되실 것이다(7-8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지금은 비록 나그네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머잖아 그 땅이 그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히브리어로 ‘아후자트 올람’)로 주어질 것이라고 말한다(8절). 이상을 두고 볼 때 이 여섯 번째의 약속은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을 되풀이함과 아울러,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임을 강조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2)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 (9-14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다음에 그에게 그 언약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하고, 또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었다(9절). 이를 위해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의 모든 남성들에게 그들의 양피(陽皮)를 베는 이른바 할례 의식을 행해야만 했다. 그리고 앞으로 낳 자손들의 경우에는 태어난 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게 해야만 했다. 물론 이 할례는 아브라함 집안에서 태어난 종들과 외국인에게서 사온 종에게도 행해야만 했다. 그래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자들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13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할례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었을까? 할례는 본래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젊은 남성들이 결혼 적령기 내지는 성년(成年)에 이르렀음을 인정하는 의식으로 행하였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할례 의식을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적용하셨다. 그러면서 그것을 갓난아이에게 행하는 의식(유아 할례)으로 바꿈과 동시에, 그 의미를 일종의 성년 의식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표시로 바꾸셨다. 그 결과 할례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를 언약 공동체에 포함시키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대한 언약 백성의 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의미 변화를 10절과 11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따라서 할례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금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언약에 충실해야만 하는 의무와 책임을 지게 마련이었다. 더 나아가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과 구별 짓는 표지가 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두운 역사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해 주는 신앙의 표지판이 되기도 했다.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할례의 표를 갖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도 갖지 못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치 않은 자는 언약 백성으로부터 끊어져야만 했

다. 언약의 표지인 할례를 행치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14절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할례는 점차 형식에 치우치면서 그 본래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육체에 행하는 외적(外的)인 할례보다는 마음과 귀에 행하는 내적(內的)인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들이 그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신 10:16; 30:6; 렘 4:4; 9:26; 겔 44:7, 9; 행 7:51; 롬 2:29 등).

### (3)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 (15-27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인 사라의 이름까지도 바꾸어 주셨다. 사라의 본래 이름은 사래였다. 그러나 그녀가 새로 갖게 된 이름은 ‘여주인’(女主人) 또는 ‘왕후’(王后)를 뜻하는 ‘사래’였다. 이러한 이름의 변화는 그녀에게 주어진 복과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16절; 새번역).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백 살이나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아흔 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17절; 새번역). 그래서 그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란다고 하나님께 말했다(18절).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임을 다시금 밝히시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이삭’(더 정확하게는 ‘이츠하크’)이라고 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이삭과도 언약을 맺으실 것이요,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9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이라는 이름은 본래 ‘그가 웃을 것이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그것을 믿지 않고 웃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이름은 동시에 아브라함이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에 정말로 아들을 낳고 난 후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서 크게 웃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다(21:6-7).

한편 하나님은 비록 약속의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 그가 자식을 많이 낳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히브리어로 ‘나시’)들이 나오으로써 그가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약속도 결들이셨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에게서 낳을 이삭의 경우에는, 한 해 후에 그가 태어날 때에 그와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20-21절).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시자(22절),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들, 곧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들 및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며, 아브라함 자신은 이스마엘과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23, 27절). 그때 그의 나이는 99살이었으며, 이스마엘은 13살이었다.

#### 4. 다시금 주어지는 아들 약속 (18:1-15)

아브라함 일가족이 할례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마므레에 있는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 때는 한창 더운 대낮이었다. 아브라함은 더위를 피하여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는데, 낯선 사람 세 명이 그의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는 항상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한다는 당시의 사회 관습(참조, 신 10:18; 14:29; 16:11, 14; 24:17, 19-21 등)을 따라, 그들에게 그냥 지나가지 말고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서 쉬다가 갈 것을 청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에게 먹을 음식을 가져오겠으니 그것을 먹은 다음에 기분이 상쾌해지면 길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1-5절).

세 명의 손님들이 자신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자 아브라함은 즉시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사라에게 고운 밀 가루 세 스아(1스아는 7.33리터=4되=1/3에바)를 반죽하여 빵을 굽게 했다. 그리고서 자신은 집짐승 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잘 요리하라고 명하였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영긴 젓(버터)과 우유 및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세 명의 나그네들 앞에 차려 놓았다. 떡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아내 사라가 만든 떡도 손님들에게 제공되었을 것이다. 이들이 나무 아래 앉아서 음식을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그들 곁에서 식사 시중을 들었다(6-8절).

그런데 아브라함을 방문한 이들 세 사람은 사실 야웨 하나님과 그의 두 천사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도리어 그는 그들이 단순히 정오 무렵의 무더위를 피하여 잠시 휴식할 곳을 찾는 나그네들이라고만 생각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그는 그들이 점심 식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내 사라와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시켜 점심을 준비하게 함과 아울러 그들에게 휴식 장소까지도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손님 접대를 염두에 두고서 다음과 같이 나그네 대접에 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히 13:2; 새번역).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처럼 친절하게 손님 대접을 받고서 식사를 마친 세 명의 손님들은 마침내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었다. 그들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나서는 사라에게 들으라는 듯이 1년이 지나면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임을 알려주었다(9-11절). 그러나 사라는 자기나 아브라함이나 아이를 낳을 나이가 아님을 생각하고서 속으로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중얼거렸다: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12절; 새번역).

그러나 사라가 자신의 약속을 웃음으로 넘기려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13절; 새번역)하고 탄식하는 그녀에게 주 야웨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을 것인즉, 반드시 1년 후에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임을 재차 약속하셨다(14절). 사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기가 웃지 않았다고 변명하였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13-15절). 사라의 이 웃음은 아브라함의 웃음(17:17-19)과 마찬가지로 후에 태어날 아들의 이름이 ‘그가 웃을 것이다’(히브리어로는 ‘이츠חק’이지만 개역은 ‘이삭’으로 옮김)라는 뜻을 가질 것임을 암시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일곱 번째로 주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바로 앞서 주어진(17장) 아들 약속과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17장에서 주어진 아들 약속이 할례를 중심으로 하는 영원한 언약의 한 부분으로 주어

진 반면에, 여기에서 주어진 약속은 전적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제까지의 모든 언약이 아브라함을 상대로 하여 주어진 것들이었다고 한다면, 이 일곱 번째 약속은 사실상 그의 아내 사라를 상대로 하여 주어진 것이었다는 점이다. 아브라함의 이름뿐만 아니라 사라의 이름까지도 바꾸어 주신(17:15)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사라를 향하여 그녀가 비록 늙기는 했지만 앞으로 1년만 있으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다.

나침반 바이블  
BIBLE